

교회소식

- 예배 후에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1시 40분).
- 오늘은 자녀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은 각 선교회 월례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중간 점검하기 바랍니다(찬양, 기도, 안건 토의).
- 밀알 장애우를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공동 성경 읽기 10주 차로 이번 주부터는 신약으로 옮겨갑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도서 순으로 독상합니다(범위: 신약 요한복음 1-21장, 매일 3장).

공동 성경 읽기 일일 점검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요1-3장	4-6장	7-9장	10-12장	13-15장	16-18장	19-21장

읽음 ○ 덜 읽음 △ 못 읽음 x

- 성전 이전 계획에 마음을 모아 주시고 의견이 있으면 꼭 알려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또 성전 이전이 우리 신앙에 진보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 다음 주 예배 후 인도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1시 30분, 느헤미야 실).
- 교회 창립 22주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는 감사와 축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립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 A Y

교회사역일지

5월 2일(주일) 자녀 주일
 5월 9일(주일) 부모 주일
 5월 23일(주일) 성령 강림 주일
 5월 26일(수) 공동체 주관 예배

기도순서

5월 9일 (주일) 정덕수 장로
 5월 12일 (수) 서영애 집사
 5월 16일 (주일) 김병진 목사
 5월 19일 (수) 신장우 집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창조, 김영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 / 07 / 18

자녀 주일

23권 18호 2021.05.02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 찬양 예배) 이성훈 목사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발립서 4:6

찬양	양	주일 찬양단
Praise		
예배로부름	마태복음 18:2-4	인도자
Call to Worship		
❖ 찬송	36장	다함께
Hymn		
❖ 참회기도		다함께
Prayer of Repentance		
❖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찬송	285장	다함께
Hymn		
대표기도		이광희 A장로
Prayer		
울동&성경암송		이동부
Special Performance		
성경봉독	창세기 20:1-8	인도자
Scripture		
찬양대찬양	하나님 나라	내무집사가 찬양대
Choir		
설교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태한 목사
Sermon		
찬송	305장	다함께
Hymn		
헌금기도		인도자
Offering		
교회소식		인도자
Announcements		
❖ 공동성경읽기		다함께
Closing Scripture		
❖ 응답송	171장 (1절)	다함께
Closing Hymn		
❖ 축도		이태한 목사
Benediction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일본 강태영 선교사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지난 사역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일본 상황은 긴급사태 선언이 동경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3번째로 내려진 상황에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각종 모임은 교회를 사모하는 영혼들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코로나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때가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원단 예배와 성령 치유 세미나: 올해부터 1월 1일에 원단 예배라는 이름으로 새해 첫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은 새해 첫날에 신사에 가는 풍습이 있어서 주위의 많은 일본 교회들이 신사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올해에 새롭게 시도한 것은 신년에 “성령 치유 세미나”를 가진 것입니다. 교회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도를 마음 놓고 크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일본 영혼들이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자원하는 교회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1월에 기도원에서 신년 “성령치유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많은 회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퍼스 신입생 전도: 작년까지 캠퍼스의 리더였던 형제가 졸업을 하게 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캠퍼스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며 훈련받던 4학년 재학생이 최근에 취업으로 바빠다는 이유로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등록된 동아리 재학생이 없었는데 올해는 대면 수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입생들 중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혼들을 만나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캠퍼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모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제목

1. 원단 예배가 잘 정착하고 학원 전도를 통해서 신실한 리더가 세워지도록.
2. 선교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며 예언자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Prayer	박진영 집사
성	경	Scripture	디모데전서 4:6-11
설	봉	Sermon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교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445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4월 25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하나님의 약속> 다니엘 6:10-13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국을 떠난 영국의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한 미국의 Plymouth 마을은 1)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2)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성직이다 3)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4) 예배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한다 5) 지성과 신앙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라는 신앙의 다섯 가지 기준을 세우고 정착한 이래로 어느덧 400동안 지켜오고 있으며 독일의 작은 마을 오버람머가우도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던 때에 교회에 모여 애굽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고센 땅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을을 지켜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극을 만들어 온 마을이 기념하겠다는 약속을 10년마다 성극을 하며 400년간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드린 자기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가장 높은 총리까지 오른 다니엘은 정치적 문화적 혼란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민첩하여 그 누구보다 뛰어났는데도(단 6:3)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어 강하고 지혜롭게 하심으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고전 1:25-29). 그렇기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십니다(약 1:5).

다니엘은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끝없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약 1:12) 믿은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 발표된 후에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10).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오늘날 미국처럼 더 이상 기독교 국가도 아닌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반면에 아직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독일의 마을은 작으나 큰 마을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기 때문입니다(삼상 2:30).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입니다(잠 8:17).

약 50여 년의 포로생활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의 민족인 바벨론에서 우상 문화에 익숙해져 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드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노예생활은 70년이 될 것이며(렘 25:9-11)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렘 29:10-13) 기억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신 42:6) 하는 탄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드리며 부르짖을 때 사자굴에 던져져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다니엘의 믿음을(6:23)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 뿐 아니라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행동한 복을 누렸습니다(6:28).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믿는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갈보리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성령의 능력 안에 보호받는 교회, 성전 이전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2. 교역자와 향촌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가 넘치도록.
3. 현실의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도록.